

성평등
2019-발간자료-03

UN여성훈련센터 &
네덜란드왕립열대연구소 KIT 공동개최

성평등 교육 전문가 전문 훈련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워크숍



성평등 2019-발간자료-03

성평등교육전문가 전문훈련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워크숍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교육전문가 전문훈련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워크숍(2019.7.23-26)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여성사회교육원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2019-발간자료-03

UN여성훈련센터 & 네덜란드왕립열대연구소 KIT 공동개최
【성평등교육전문가 전문훈련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워크숍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UN여성훈련센터 & 네덜란드왕립열대연구소 KIT 공동개최

[성평등교육전문가 전문훈련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워크숍

1. 사업개요	1
2. 오리엔테이션	5
1) 참가자 소개	7
2) 활동 : 교차성 이론의 적용	9
3) 기대 나누기	15
3. PDPGT는 무엇을 주었나	17
1) PDPGT 프로그램 개요	19
2) 모듈 상세소개	22
2-1) 모듈 1의 주요 내용	23
2-2) 모듈 2의 주요 내용	26
2-3) 모듈 3의 주요 내용	27
3) 활동 : 젠더 릴레이	29
3-1) 개요	29
3-2) 활동 결과	30
4. 젠더교육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43
1) 모듈 토론	45
2) 모듈 내 개인 활동 :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56

5. 교차성과 남성성, 저항 다루기...	
그리고 다시 교육설계	60
1) '저항 다루기'에 관한 역할극	62
2) 저항의 유형과 대응 전략	73
3) 모둠 활동 : 그리고 다시 교육설계	76
4) 개인 활동	78
6. 교육평가의 다양한 방식과 그것의 목적	84
1) PDPGT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평가 방법	86
2) 모둠 활동	88
7. 교육훈련 설계 및 전달	97
1) 모둠 활동	99
8. 라운드 테이블 :	
교육 설계 모둠별 발표 및 집단 코칭	101
1) 모둠별 활동결과	103
2) 모둠별 활동결과에 대한 집단코칭 의견 모음	109

1. 사업개요

○ 프로그램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인 젠더트레이닝의 흐름과 내용, 방법 등을 알게 된다.
- PDPGT의 핵심 주제인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여성주의 교육학의 원칙과 방법론)의 주요 원칙과 교차성 이론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설계를 점검할 수 있다.
- 참여 학습의 다양한 사례와 쌍방향 평가모델의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함께 만든다.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26일(금), 매일 9:30~17:3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 진행 : 황금명륜(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대표)
- 대상 : 서울·수도권 성평등교육전문가 30인

○ 워크숍 일정

일시	섹션	주제
23일(화)	1	오리엔테이션 : 개요, 일정, 참가자 소개, 기대 나누기
	2	PDPGT는 무엇을 주었나 : 모듈 1,2,3의 내용과 얻은 것
24일(수)	3	젠더교육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4	교차성, 남성과 남성성, 저항 다루기... 다시 교육설계
25일(목)	5	교육 평가의 다양한 방식과 그것의 목적
	6	교육훈련 설계 및 전달 : 그룹작업
26일(금)	7	라운드테이블 : 그룹 발표 및 집단 코칭
	8	라운드테이블 정리, 평가 및 수료

2. 오리엔테이션

- 1) 참가자 소개
- 2) 활동 : 교차성 이론의 적용
- 3) 기대 나누기

1) 참가자 소개

참가자 소개 & exercise 1



추석에 밝힌 보름달 아래서 여자들이 손을 잡고 동글게 서서 빙방 돌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강강술래예요. 전라남도에서 전하는 민속놀이로 국가 무형 문화재 제2호이며,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 유산으로 등록되었죠.

Halla

달빛 아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반갑게 인사해요~**

1. 네. **그리고** 저는 ~~~이고 ~~~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10초)
2. **성평등** 관련한 **나의 슬로건**은?

- 성평등과 관련한 자신만의 슬로건을 준비된 카드에 적은 후, 참가자 전부 동글게 원을 만들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선다.
- 앞사람의 소개 뒤에 “네, 그리고”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규칙임을 말하고 진행자가 첫 시작을 연 뒤, 옆사람이 이어서 릴레이로 시작한다.
- “네, 그리고”라는 간단한 접속어만으로도 “앞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사를 피력하는 말하기 방식이 가능함”을 공유하고 소개 시간을 마친다.
- 두 번째 소개로 각자 자신이 적은 슬로건을 돌아가며 말하되, 슬로건 앞에 “이부자리에서조차~”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도록 규

칙을 안내하고 진행자부터 시작해 릴레이를 이어간다.

- 처음 만난 참가자들 사이에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성평등을 위한 자신의 신념이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함께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공유 하며 마무리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도록 안내한다.

2) 활동 : 교차성 이론의 적용

교차성 이론의 적용

- **그룹 토론 : Power Walking? Privilege walking!**

우리가 마주하는 교육현장에서 이 활동이 가능한 방법은?
(30분)

1. **조건** : 가능한 참여 인원은? 공간의 구조와 면적은?
장애나 문화력 등에 영향받지 않을 방법은?
그 외 필요한 조건은?

2. **질문** : 권력이나 특권에 대한 교차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질문내용에 무엇이 있을지 그 예시를 최소 5개
이상 찾고, 각각의 질문을 카드에 적어 붙인다.

- 활동에 대표로 참여할 10여명의 지원자를 객석 앞으로 나오게 한다. 지원자는 진행자가 말하는 상황을 듣고 해당이 되면 한 발 앞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뒤로 한 발, 해당이 되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려우면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상황 예시

1. 나는 어떤 자리에서건 학력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2. 나는 컴퓨터나 신기술, IT 제품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두려움이 없다.
3. 나는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을 원할 때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다.
4.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
5. 나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함 또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6.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7. 나는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8. 나는 외모로 인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없다.
9. 나는 내 의견이 ‘소수’라는 이유로 묵살당한 적이 없다.
10. 나는 밤 산책을 고민하거나 밤길이 무서운 적이 없다.
11. 나는 집에서 TV 채널권을 뺏긴 적이 없다.
12. 나는 주말이나 저녁에 가족 눈치를 안 보고 약속을 정할 수 있다.

- 활동을 마친 후,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게 한 후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위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몇 가지 상황예시를 다시 말하며 전진한 나와 달리 후진해야 하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떠올려보는 질문을 통해 권력관계의 상호 교차성을 확인한다.
- 각 모둠별로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이 활동의 조건과 발전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며 공유한다.

• 모둠토론 내용

1 모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 ‘장애’의 종류(시각, 청각) - 문해력 : 여러 번 반복, 쉽게 구성하기 - 동질집단 내 미세한 차이 드러나는 질문 구성하기 - 보드게임식 : ‘말horse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	---

- 토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효과(느낌) : ‘내 위치, 어느 문장에 와닿았나?’
- 전지로 가능
- 이 프로그램 목적은? 교차성 경험
- 아주 작은 차이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

1. 조건 : 스티커, 단계별 라인 표시, 넓은 공간, 15~20명 수용 공간, 통제가능공간,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체육관 같은 강당, 다양한 구성원 확보 20명 정도, 관찰자/참여자 나누기, 위에서 전체를 보는 구조, 도표나 바둑돌, 앞에 나가서 자기 노출하는 데 용기가 필요,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 중요함,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체크리스트도 가능

2. 질문 : 교육 대상을 청소년, 고등학생 여남 20명으로 설정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학업 성적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다, 외모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다, 단톡방의 대화가 불편한 적이 없다.

**2
모
듬**

1. 조건

- 1) 대상 : ① 장애+비장애 통합 ② 비장애인 ③ 청소년·아이들의 지적장애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고민이 필요함. 질문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음(대상에 맞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안전한 질문이 되도록 sexuality에 대한 질문, 질문을 글·그림, 시청각자료로 이해시켜주기(도움이 필요한 경우)
- 2) 가능한 참여 인원?
 - ① 15~20명 이내 워크숍
 - ② 대형강의 or 공간이 없는 경우 → 개별작성지 그룹별 공동작성지 보드판
 - ③ 연계활동 또는 유사활동으로 ‘젠더특권 수레바퀴’ 가능



※대형강의의 경우, 개별시트지 작성시 참여자 중 성별, 연령, 직업 등 대표성 고려하여 발표(인터뷰) 시키기

3) 공간의 구조와 면적

- ① 무대 위에서는 앞뒤는 보이지만 양옆 공간은 애매
- ② 기준선이 없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한 칸이 누군가에게는 심리적으로 두 칸 일수도 있다)
- ③ 체험자들이 질문을 앞에서 보면서 이동(체험)할 수 있도록

4) 장애나 문해력 등에 영향받지 않을 조건

- ① 질문의 끝을 동일하게 통일
- ② ‘~없다(특권 고정관념깨기)’라는 말보다는 ‘~있다’로 마무리

5) 그 외 필요한 조건은?

- ① 서로 다른 위치를 체험 후 해석해주는 작업이 더 중요함 (sharing) → Wrap-up
- ② (특권계층)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함(뒤를 돌아보기) 일부러 안 돌아보면 나의 특권을 알 수 없음. ‘조직 안에서는?’
- ③ 반대 질문 던지기
- ④ ‘누가 이 상황에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 ⑤ FAQ, 애초에 질문구성시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함
- ⑥ 차별점수(경험)로 보기보다는 위치(차별적 조건, 삶의 경험)로 해석하기
- ⑦ 질문을 만들기에 앞서 누리고 있는 권력과 특권(키워드)을 먼저 정리해보기

1. 조건

- 가능한 참여 인원은? 30명 이내
- 공간구조 : 평면구조

- 면적 : 학교 교실 정도(20~25평 정도)
- 그 외 필요조건 : 교통약자가 이동가능한 공간, 엘리베이터 등
- 장애·문해력 : 슬라이드·리딩 함께
- 그 외 자발적 인원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샘플 활동을 하거나, 말판 사용한 모둠활동 등으로 가능

2. 가능한 질문 예시

- 나는 출신 지역을 당당히 밝힐 수 있다.
- 나는 내가 좋아하는 외식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 나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입을 수 있다).
- 애인(파트너)을 모두에게 소개할 수 있다.
- 나의 질병으로 사회활동 지장을 받지 않는다.
- 나는 어디서든 나의 의견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
- 내가 사는 동네를 얘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위축된 적이 없다.
- 내가 사는 지역, 생활, 문화, 환경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 나는 성폭력 상황에 대비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
- 고기집이 회식장소가 될까봐 걱정한 적이 있다.
- 스마트폰 어플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
- 술에 취해서 밤길을 걷는 데 두려움이 없다.
-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 학업성적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다.
- 외모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다.
- 단톡방의 대화가 불편한 적이 없다.
- 게임할 때 성별이 공개되어도 괜찮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점심식사에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할 수 있다.
- 가족들의 동의없이 혼자 여행을 갈 수 있다.
-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 어떠한 관계(상황)에서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옷차림에 신경 써본 적이 없다.
- 택시비를 지불할 때 카드와 현금 중 고민한 적이 없다.
- 여름휴가를 갈 수 있다.

- 가족을 소개하는 데 불편한 적이 없다.
- 2년마다 이사하느라 고민한 적이 있다.
- 화장이나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스킨십을 할 수 있다.
- 애인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다.
- 부모의 직업을 말할 수 있다.

3) 기대 나누기

참가자 소개 & exercise 1

- 그룹작업 : '희망' 그리고 '두려움'
(어떠한 종류의 판단이나 비평 없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 적기



-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희망'과 염려되는 '두려움'을 브레인스토밍기법으로 모둠에서 돌아가며 말하고, 해당 키워드를 카드에 나열하며 적어 지정된 전지에 붙이고 갤러리 워크¹⁾로 확인한다.

1) 갤러리 워크 : 전지 또는 카드를 벽이나 플립 차트에 붙인 후 각각의 내용을 걸어 다니면서 보고, 궁금한 점 등을 묻고 답하는 활동

• ‘기대 나누기’ 결과

<p>희 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아감, 시작, 배움, 새로운 만남, 복습, 설레임, 성장, 편견깨기, 다양한 교육 방법, 성취 - (교육을 통한) 업그레이드, 더 많은 강의 질적으로 향상된 강의, 정보교류, 새로운 콘텐츠, 재충전, 전문가, 새로운 배움, 경험의 확장, 용기, 자신감, 열정, 평등 - 비전(나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워크숍 기법에 대한, 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많은 사람들의 경험 공유, 재미있기를, 생각이 정리되길 - 역량강화, 참여, 자유로움, 소통, 공부, 나누는 교육, 페미니즘 페다고지 글로벌 스텐다드. 나의 시간, 상상+, 빨간약, 아이디어 - 신박한 교육의 트렌드, 새로운 만남, 좋은 사람들, 도전, 성장, 연대, ‘동지, 그 자체’, 공감, 깨달음, ‘지식, 통찰’ - 백래쉬 대응 노하우, 다른 분야(현장) 이야기 듣기, 새로움, 지금여기, 도전, 친구, 교육, 페다고지, 스킬, 팁, 지혜로운 한방, 영페미들의 소리
<p>두 려 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가림, 질문, 활동, 토론, 자기검열, 밤길, 졸음, 화장실, 과제, 방과 후 - 피로, 방전, 열등감, 번아웃, 나이듦(기억력), 멍 때림, 낯설음, 고정된 편견, 끈대, 고집, 졸음, 질문, 감정노동, 긴장, 발표, 백래쉬, 말하기 싫음 - 지각, 피곤, 점심(거리), 발표, 아이디어에 대한(빨리 안 나오는), 평가, 지각과 조퇴, 낮은 성인지감수성 - ‘토론, 발표’, 백래쉬, 저항, 20대, 주차비 - 지루함, 노하우가 안 나올까봐, 아이디어 없음, 지성발휘 안 됨, 나서기, 새로움, 아는 사람 없을까봐(혼자 분야가 다를까봐), 결과물, 멍때리는 교육생 - 몸으로 하는 활동, 졸음, 워크숍 활동, 소진, 건강, 진로 고민, 부족함, 뽀록(밀천드러남), 모듬배열, 낯가림

3. PDPGT는 무엇을 주었나

- 1) PDPGT 프로그램 개요**
- 2) 모듈 상세소개**
- 3) 활동 : 젠더 릴레이**

1) PDPGT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PDPGT, 젠더트레이너를 위한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인증과정

Certifie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G**ender **T**rai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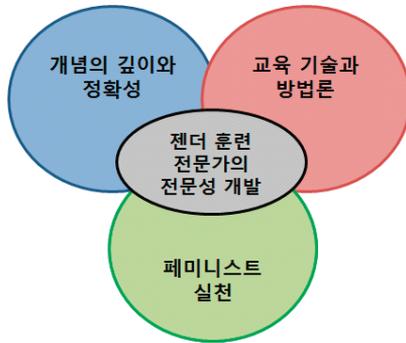
- **일정**

- 모듈 1 : 2018년 10월 22일~2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집 교육
- 모듈 2 : 2018년 11월~2019년 4월,
과제 수행 및 온라인 멘토링
- 모듈 3 : 2019년 4월 29일~5월 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집 교육

- **프로그램 목표**

- 젠더와 개발 이론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확보한다.
- 사회적 관계로서 젠더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 참가자들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주류개발정책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 프로그램 개발 초점



• 프로그램 내용

- 젠더 관계와 개발
- 지위와 위치, 개발의 보편적 주제
- 변하지 않는 담론에 대한 대응 : 젠더, 문화, 전통
- 젠더 과학 : 경제 성장과 젠더
- 젠더 불평등의 제도적 구조
- 젠더와 개발에서의 남성과 남성성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 농업과 지역 개발
- 교육
- 개발 속의 젠더 접근에 대한 최근 경향
- 젠더 정책의 제도화와 젠더 거버넌스 사이 성공의 딜레마

• 프로그램 스케줄

Module 1 : 젠더와 개발의 이론적 관점 (2018년 10월 22~26일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집 교육)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오전) 모듈 1의 주제와 개요, 과정 소개 (오후)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개발에서의 젠더 관계	(오전) 지위와 위치, 개발의 보편적 주제 교차 활동 (오후) Practice 과정	(오전) 변하지 않는 담론에 대한 대응 : 젠더, 문화, 전통 (오후) Practice 과정	(오전) 젠더 과학 : 경제적 성장과 젠더 (오후) Practice 과정	(오전) 모듈 1 리뷰 활동과정 발표 (오후) 모듈 2 소개 과제 안내
온라인 학습과 멘토링 작업 / 과제 진행				
Module 2 : 젠더 관점으로부터의 개발 영역 (2018년 11월~2019년 4월 / 온라인 과정)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섹션 1) 소개와 온라인 구축 (섹션 2) 사회적 제도의 개념 포괄	(섹션 3) 개발 과정 1, 젠더와 개발 (섹션 4) 개발 과정 2, 젠더와 개발	(섹션 5) 개발 과정 3, 젠더와 개발 (섹션 6) 개발 과정 4, 젠더와 개발	(섹션 7) 개발 과정 5, 젠더와 개발 (섹션 8) 모듈 2 리뷰 멘토링 소개와 과제 안내	
온라인 학습과 멘토링 작업 / 과제 진행				
Module 3 : 국제 개발에서의 정책과 활동 (2019년 4월 29일~5월 3일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집 교육)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오전) 모듈 3의 주제와 개요 (오후) 국제 개발에서의 정책과 활동	(오전) 젠더 정책의 제도화와 젠더 거버넌스 사이 성공의 딜레마 (오후) 그룹 토론	(오전) 교차점에서의 젠더와 개발 : 이론으로 돌아가기 (오후) 그룹 토론	개인 발표 (구술 시험) 개인 발표 (구술 시험)	(오전) 개인 발표 (구술 시험) (오후) 모듈 3 리뷰 미래로 귀환 평가 수수료

- **주최 기관**

- KIT 연구소, **KIT Royal Tropical Institut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는 왕립기금연구소. 젠더, 건강, 농업분야 등의 교육전문가 및 연구자 들로 구성된 연구소로 현재 유엔여성훈련센터와 함께 다양한 젠더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중

(웹사이트 <http://www.kit.nl>)

- 유엔여성훈련센터, **UN Women Training Center**

2011년 유엔 여성(UN Women) 산하에 설치된 기구. 도미니크공화국에 소재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여성주의 리더십과 정치적 참여, 경제적 임파워먼트, 여성에 대한 폭력, 평화안보, 성 주류화, 강사교육훈련 등의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

(웹사이트 <http://trainingcenter.unwomen.org>)

2) 모듈 상세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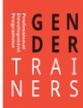
- 섹션 1. 여성주의 교육학(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섹션 2. 여성주의 인식론과 개발에서의 젠더관계
- 섹션 3. 트랜스젠더 이슈를 통해 이분법적 젠더에 관해 생각하기
- 섹션 4. 여성주의 교육학과 교육의 사이클(ADPDIE) 적용
- 섹션 5. 불변성의 담론 : 젠더, 문화 그리고 전통
- 섹션 6. 저항을 뛰어넘기
- 섹션 7. 젠더분석 개념 :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젠더위계
- 섹션 8. 개발에서의 젠더의 의미
- 섹션 9. 교육훈련 설계 및 전달 : 그룹 발표 및 집단 코칭
- 섹션 10. 소감 나누기, 평가, 모듈 2 소개 및 과제 안내

2-1) 모듈 1의 주요 내용

• 여성주의 교육학

- 참여학습 : 힘의 역학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여성주의 교실”(협력적, 경험적, 평등한, 상호적, 관계적, 정서적)
-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정 : 개인적 경험을 동시에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때로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
- 사회적정의, 행동주의, 책임성에 대한 격려 :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로서의, 특히 지식과 지식인의 위계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교육
- 비판적 사고 및 열린 사고방식 개발 : 토론과 대화, 불확정성을 위한 공간 만들기. 상충되는 모순들에 대처하고(또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고력 개발

* 출처 : UN Women Training Centre (2017) Feminist Pedagogies i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Santo Domingo: UN Women Training Centre



여성주의 교육학 : 주요사항들

- 참여학습 : 힘의 역학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여성주의 교실”(협력적, 경험적, 평등한, 상호적, 관계적, 정서적)
-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정 : 개인적 경험을 동시에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때로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
- 사회적 정의, 행동주의, 책임성에 대한 격려 :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로서의, 특히 지식과 지식인의 위계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교육
- 비판적 사고 및 열린 사고방식 개발 : 토론과 대화, 불확정성을 위한 공간 만들기. 상충되는 모순들에 대처하고(또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고력 개발

Source: UN Women Training Centre (2017) Feminist Pedagogies i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Santo Domingo: UN Women Training Centre

1

• 교차성에 대한 이해

GEN
DER
TRAI
NERS

다양한 위치성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나는 유럽인이다.

나는 성노동자이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서류를 갖추지 못한(undocumented) 이주자이다.

지난달 경찰에 도반 체포됐다. 한번은 서류가 없어서, 두번째는... 누가 알겠는가?

나는 젠더퀴어(gender queer)이다.

나는 남아프리카 흑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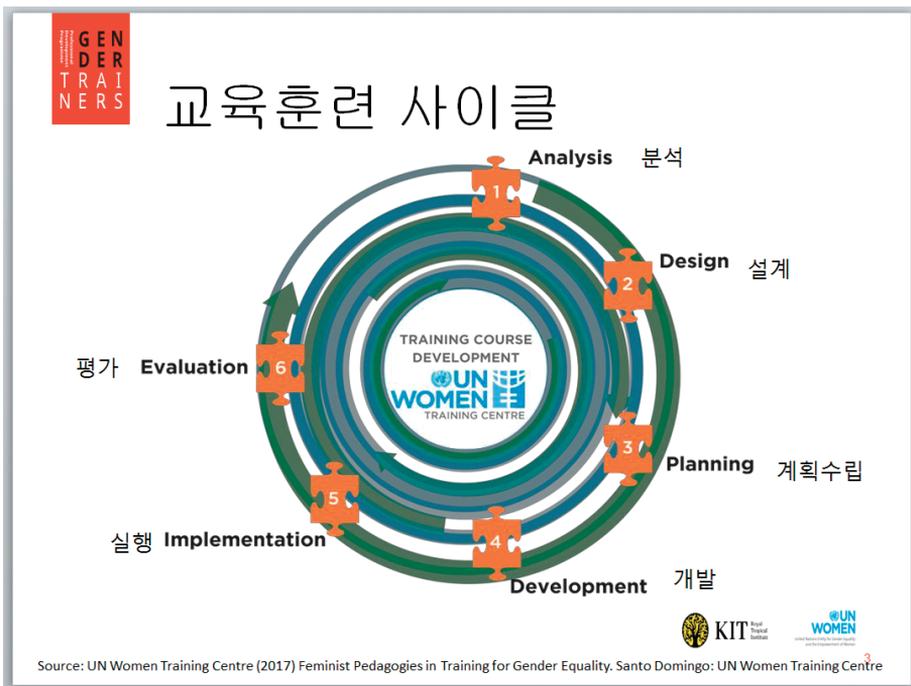
나는 인권 소송과 관련된 NGO에서 일한다.

나의 신분증명서들에는 내가 선택한 젠더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달 한 가게 경비원들에게 의심을 받았다. 내가 여자 탈의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완전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

• 교육 훈련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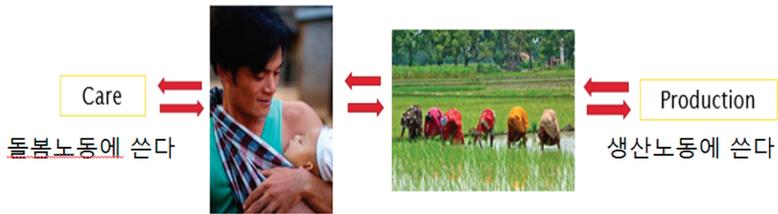


• 생산과 재생산



생산과 재생산

우리(남성과 여성)는 우리의 노동력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재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대가를 받는다.(생산)

2-2) 모듈 2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멘토링

- 희망주제별로 구성된 팀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문서(제작된 대륙, 국가, 기관 관계 없음)를 젠더분석하여 가상공간에서 발표함
- 이에 대해 지도교수 3인이 피드백과 함께 향후 과제 수행에서 필요한 지점에 대해 개별 코칭함
- 젠더기반폭력팀은 인도의 ACT(일터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관한 기본법)를 선정하여 분석, 발표함
- 이 과정을 통해 “젠더는 이분법적일 수 없으며 남성·여성은 단일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다. 즉 하나의 범주로 제한하여 논의될 수 없다. 이슈마다, 지형마다 교차성의 원칙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함



A Gendered Analysis of the India's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place (Prevention, Prohibition and Redressal) Act

Group members -

Eseme Nnamdi

Myoung Ryoan Kim (Goldie)

Y.K.Sandhya

2-3) 모듈 3의 주요 내용

• 남성과 남성성



성평등의 중요성을 젠더 포괄성의 도덕의식으로 전환

• 여성과 소녀들만이 성폭력의 희생자는 아니다.

- 인도주의적 위기시, 성폭력에 대해 남성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와 간성(LGBTI)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이 존재한다.

• 성폭력만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 “성애적” 폭력에만 환원될때 포함될 수 없는 많은 형태의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타겟화하는 것, 즉 지뢰에 의한 희생, 납치 및 군입대 강요, 성별 학살,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심리적 의상등을 겪게 되는 등) 등

- 군사화의 생산물은 갈등상황에서 가해자들의 성폭력에 의해 제한되는데, 남성자신들이 군사화되는 과정에서 성별 폭력에 희생자로 노출되기도 한다.

-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특정 서비스 접근 제한 등 LGBTI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도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

•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 관계가 아닌 생물학적으로 좁게 정의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6



It is not a binary, it is a hierarchy

• 여성과 소녀에 대한 권리와 필요에 대한 조명은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어렵게 얻어진다. 인도주의적 반응에서 통합되거나 자원화되지 않는다.

• 여성과 소녀들은 분쟁적 상황에서 남성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성폭력(분쟁이 야기한, 그리고 가정과 커뮤니티 안에서)을 경험한다.

•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여성이 성별 위계에서 하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경험되는 구조적 불평등과 폭력의 복합적 형태에의 노출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 남성과 소년들, 그리고 LGBTI 사람들에 대한 폭력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폭력을 충동하는 힘이 다를 뿐만 아니라, 폭력의 사회-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영향이 구조적인 성불평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7

· 남성과 LGBTI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남성과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려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관련된 일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하여 포커스를 유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행동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예방에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 활동 : 젠더 릴레이

3-1) 개요

- 전지가 나열되어 있는 공간에 모둠별로 한 줄로 선다. 맨 앞 사람에게 매직을 준 뒤 섹스와 젠더, 남성과 여성 매트릭스의 각 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하나 적은 뒤 뒷사람에게 매직을 릴레이로 전달하도록 안내한다. 어느 팀이 가장 많은 숫자의 키워드를 적는지가 게임의 승패를 가를 것임을 예고하여 경쟁적으로 많은 숫자를 쓰도록 유도한다.
- 3~5분 정도 시간을 정해 동시에 시작한 뒤 종료되면 키워드 숫자를 센 뒤 서로 확인한다. 그러나 어느 팀이 더 많이 썼는 지보다는 쓰여진 키워드가 각각의 개념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임을 확인하며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exercise 2



젠더 릴레이

섹스/젠더/남성/여성에
해당되는 키워드 이어적기
가장 많이 적는 팀 우승!

<그룹 토론 주제>

- ✓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 ✓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주요 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 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 ✓ 성평등 교육에서 이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 또는 내용, 사례는?

3-2) 활동 결과

◦ 1팀

	섹스	젠더
남성	음경 수염 자지 몽정 성욕	멋있다 단순 용감 리더 의리 씩씩하다 울면 안 돼 씩씩
여성	월경 수유 음핵 유방	섬세하다 조신하다 친절 배려 따뜻하다 온순 상냥 돌봄 착하다 통합 모성 화장

◦ 2팀

	젠더	섹스
남성	힘 통제못함 공격성 섹드립 감정적 미셔너리 포지션 리더십, 카리스마 힙합은 남자	자기만족 수염 몽정 페니스 교환
여성	다리 벌리지 마 아기 돌보기 수유 임신 조신 외모꾸미기 재수없어 걸레	섹시해~ 남자 몸매 끝내준다

◦ 3팀

	여성	남성
젠더	조신하다 수동적 존재 애교 조신 수동적	가장 적극적이다 근육 허세 성욕 생계부양자 썬척 울지마 가슴털 자위(딸친다) 터프 근육 테크닉
섹스	임신 음순 보지 가슴 출산 자궁	수염 키 음경 자지 포경수술

• 모둠 토론 내용

- ‘이 젠더 릴레이와 4가지 원칙- 참여학습, 개인적 경험의 가치 부여, 사회정의와 행동, 책임성에 대한 독려, 비판적 사고와 열린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등 여러 질문들. 이제 20 분간 토론진행하고, 전지에 토론내용 적으며 진행. 5가지 질문 중 3가지 이상 토론하고 발표

- 토론주제

- 1)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 2)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주요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4) 활동이 원할히 되지 않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 5) 성평등 교육에서 이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 또는 내용, 사례는?

◦ 1조

- 1)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 ① 젠더와 섹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젠더와 섹스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젠더와 섹스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교육 참여자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다
- 2)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주요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① 참여학습
 - ② 개인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 : Sex, Gender에 대한 재명명
- 3)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① Sex, Gender에 대한 개념적 이해 선행
 - ②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안전한 공간이라는 믿음
- 4) 활동이 원할히 되지 않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 ① 경쟁유도

- ② 상품준비 - 동기부여
 - ③ 사전 규칙 공유
 - ④ 단어카드 사전 제작 후 붙이기만 하기
- 5) 성평등 교육에서 이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 또는 내용, 사례는?

◦ 2조

- 1)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 ① Sex, gender에 대한 개념점검, 정리
 - ②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함. 범주를 나눠서 봄으로 가시화됨
 - ③ 섹스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였음을 확인
- 2)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주요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다 가능), 참여학습, 사회 정의, 행동주의, 책임성에 대한 독려
- 3)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경쟁구도(승부욕), 상호신뢰가 필요함
- 4) 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 Pass/chance, 보상(사탕 한 봉지)
- 5) 성평등 교육에서 이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 또는 내용, 사례는?
 - 교차성. 폭력예방교육시 브레인스토밍. 섹스의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 없음

◦ 3조

1) 얻을 수 있는 것

- 평소 인식수준 파악 가능 → 고정관념 해체·인식·보완
- “Sex”라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자발적으로 나옴 → 가변성·보편성에 대한 질문
- SEX-GENDER의 연결, 타당성 검토
- GENDER, SEXUALITY뿐만 아니라 “SEX”자체 개념에 대한 인지(활동가와 일반대중의 차이)
- 쉽게 체득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됨

2) 가능 조건

- 기본인식수준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수준이 미달이어도 검열없이 나올 수 있음
-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한 개념인지 당위에 대한 설득과정 필요함
- 강사가 수업 목적을 명료화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니게 됨 → 강사역량수준에 따라 수업의 성패가 갈림
- 성별역할, 고정관념을 가시화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 필요함

3) 보완책

- 활동자체에 대한 당위 논의.(대상자 수준에 따라)
- (릴레이)중간영역 만들기(참여자 설명)
- (릴레이)구분하는 작업이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 → 성별고정관념을 되려 고정화재

생산 할 수 있다는 비판 → 개념해체 작업진행 필수(강사의 발문)

- (릴레이)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절대량 비교작업 →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과함을 인지
-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함
- 연령, 대상에 따라 속도 경쟁이 아닌,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방식도 필요함
- 섹스/젠더 같은 개념어가 어려울 때 설명해줄 수 있는 말 필요함
- 예시자료 제시하기(날말카드)
- 틀림(오개념)을 지적할 때 수강생의 입을 빌리기

4) 활용방안(대상)

- 릴레이 → 중년,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집단, 지역리더

◦ 4조

- 1)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 분석·비교·평가·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선명해짐. 프레임이 바뀜. 참여자들의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음
 - 학습자 참여학습의 효과.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음
 - 던져주고 설명하는 강의식 교육 벗어날 수 있음
 - 서로의 생각 공유, 확인 → 재확인
 - '자지', '보지' 단어 쓰고 말하는 경험
 - 릴레이·게임 → 다이내믹이 있어 졸음·피로도 없음. 순간적 공동체성 발휘

- 많은 人, 모두가 참여 가능
- 2)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주요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개인 경험에 비추어 젠더 고민할 수 있음
 - 비판적 사고·관점에 대해 이야기 가능 → 열린 사고로 연결 → 실천전략 가능, 재해석·재구성 과정을 거쳐 방향성 확인(옳고 그르다 가치 판단이 아닌) 트레이너의 테크닉 중요. 마무리 정리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질문
 - activity를 학습자 간 소통이 되어 서로 존중받는 경험, 영향
 - 학습자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교육의 효과성 증대
- 3)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모든 학습자를 수용·포용해야 하는 강사 trainer 역량
 - trainer가 보다 퍼실리테이터 역할/포지션으로 해야 함
 - 강사가 개념 명확히 알아야 함
 - 선수학습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일 듯함
 - 동기부여(사탕 한 봉지) 중요함
 - 상호신뢰가 필요함
 - 퍼실리테이터의 자기학습+준비 철저히 해야 함
 - 비교집단 규모 5:5 2팀 이상, 모둠 내 ‘빙고’ 게임도 가능함(개별)
- 4) 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 자발성이 매우 낮은 그룹, 무기력 보수적 집단은 새로운 교구 개발

- 선행학습이 있어야 원활할 듯함
 - 매력적인 상품
 - 카드 게임/젠더릴레이 둘 다 준비(선택적 사용)
 - 단어카드 준비해서 ‘선택’해서 붙이기(쓰는 것 어려워하는 집단) 고르거나 분류하게 하기
- 5) 성평등 교육에서 이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 또는 내용, 사례는?
- ‘젠더박스’ 넘어 ‘통념, 성폭력, 고정관념, 성역할 등등’으로 연결해서 교육 가능 ex) ‘남여’ 데이트/섹스, 연애/섹스
 - 젠더릴레이 통해 다양한 ‘키워드’ 적용 가능. 대상에 따라 주제 선택(ex. 직업)
 - 상황을 주고 성별로 느껴지는 감정, 마음의 소리 적게 함(ex. 택시) 다양한 차별, 혐오 경험 확장 가능

◦ 5조

- 1) 가능하게 하는 조건
 - 젠더, 섹스에 관한 사전 학습
 - 인원 수에 대한 조정(ex: 모둠별 5인 → 2팀, 10명~, 10인→4팀, 40명)
- 2) 활용
 - 사후 학습에 관련된 평가, “질적평가” 유효함
 - 성별고정관념 → 재인식의 과정
- 3) 교육 전

- 교육 대상에 관한 성별고정관념 → 파악의 장치
- 4) 원활하지 않을 때
 - “경쟁”식 활동의 유용성 높이기 ⇒ 상품 주기
 - 무기력한·보수적인 집단 ⇒ 새로운 교구 or <단어 카드>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게 하기(※강사의 사전 준비 필요함)
 - 개인 경쟁으로 전환하기→빙고게임
 - 끝까지 가망이 없으면, 빠르게 태세 전환하기
- 5) 성평등 교육 활동 연계
 - 상황(구체적 상황, 택시, 골목길 등)에 대한 “감정” 릴레이 쓰기 → “미러링” 활동 : 성역할에 대한 느낌·토론해서 입장 공유하는 활동으로 연결
 -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
 - 여성·남성이 느꼈을 것 같은 “마음 소리” 릴레이 쓰기
 -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
 - “차별·혐오·다양성”의 주제와 연결해서 활동유도

◦ 6조

1) 활동성과

- gender·sex 개념 이해
-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통점 발견
- 성별고정관념 발견·극복
- 젠더불평등(한 사회) 이해, 인식 공유
- 재미

- 전체 교육생의 참여(강제성), 원하지 않는 교육생의 의사 반영
 - 참여자의 인식수준 알 수 있음
 - 릴레이키워드를 카운팅할 때 제일 많이 답한 조, 중복되는 단어 확인(가장 많이 나온 것)
- 2) 페미니즘 페다고지와 연결
- 개인적 경험과 연결
 - 참여학습
 - 실습 후 공유, 연계활동 통해 실천 전략 마련. 현장에서 남녀가 별로 다르지 않음(생물학적 여성)
- 3) 활동 가능 조건
- 감수성이 너무 높은 집단은 재미가 없을 수도...^_^
 - 강사의 역량 중요. 틀린 키워드 재배치 등
 - gender·sex 개념 선행학습
 - 최소 10명(비교집단)
 - 평등한 사회에서는 할 수 없음. 즉 어느 사회나 가능한 활동
 -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상호신뢰, 비난 X, 과도한 경쟁 구조 X)
 - 릴레이 조 구성시 성별·연령·직급 등 교육생 특성별로 교차성
 - 활동의 순서를 강의(이론) 전후로 다르게 배치 가능
- 4)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 애초에 활동을 2개 준비(대안, 플랜B)

- 매력적인 상품
- 예시나 동영상 활용(미디어, 광고) 통해 자신의 경험을 유추할 수 있게 하기
- 시뮬레이션 된 이야기를 통해 sex·gender 찾기, sex·gender 예시를 골라서 분류해보기
- 4장의 포스트잇 작성 후 붙여보기
- 젠더와 섹스를 차별·다양성 등으로 변환 가능

5) 연계활동

- 단어카드 재분류, 개인대항전(빙고게임)
 - ① 앞서 제시된 내용들을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이 불편함, 차이, 분류 바꿔볼 수 있을까? → 예: 우리 교실의 실천사례(행동변화 유도)
 - ② 이야기 바꿔쓰기, 말풍선 채워넣기 : 성폭력통념, 특정 상황(퇴근길, 화장실 등)을 보여주고 느낌쓰기
- 재구성·재해석 마무리 활동 중요함

• 전체 토론 내용

Q1,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 참여학습이 가능
 - 학습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불편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음.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을 지양
- 참여자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음
 - 이 작업이 잘 먹히는 곳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정말

- 지겨워요. 하신 집단들의 의식수준을 잘 알 수 있었음
-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음
 - 시간제한이라는 트릭을 걸어서 의식수준을 알 수 있음

Q2,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주요원칙과 어떤 관계

-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경험할 수 있음
- 개인경험에 가치 부여
- 참여학습
- 비판적 사고와 열린교실을 만들 수 있음
- 섹스와 젠더에 대한 재명명, 리네임을 할 수 있는 건 페다고지의 어떤 원칙과 연결지을 수 있을까. ‘성인지 문장 다 외워요.’하시는 분들과 작업하면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재구성, 재확인하면서 성평등 가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활동공유, 실천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번의 질문이 중요함. 젠더릴레이가 가능한 조건이 있음. 이 토론을 할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언제나 다 가능하지 않음. ‘젠더 불평등을 겪어봐야 돼’ 할 때, ‘안 겪어보면 안 될까요?’ 하는 저항이 있음
- 상호신뢰가 필요함. 못 쓸 때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기
 - 공무원 74명과 젠더감수성 훈련할 때, 5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서 젠더릴레이를 했는데, 대표선출게임 후, 대항전을 했는데, 한 팀에 6명, 총 18명이 진행함. 그 화이트

보드를 다 보고 있는 구조임. 못 쓰는 차례가 발생하는데 팀 대항전이다 보니 플로어에서 팀원들이 말했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해도 가능함

- 강사가 젠더에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해야 가능함. 강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진행자체가 불가능함.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젠더의 G를 잘 모른다.' 했을 때, 막 씀. 막 써서 젠더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다보니, 개념정의를 하고 마무리 과정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가능한데, 앞 과정에 배치하면 매우 흥미진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는 과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젠더릴레이는 섹스와 젠더를 잘 모르거나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닐 때 유효하게 쓸 수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집단에서는 역동성이 덜 할 것임
- 젠더 릴레이는 최소 5:5 두 팀 정도는 돼야 가능함. 대항전일 때 가능한 방식임. 모둠 안에서 빙고게임으로도 가능함
- 적용해본 현장에서는 특성적으로 구별될 정도로 나온 적 없고, 여성들도 되게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함

Q3, 원활하지 않을 때

- 매력적인 상품 구성하여 도전의식 고취시키기
- 무기력한 집단, 보수적인 집단은 절대 움직이지 않음. 새로운 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활용함
- 개인경쟁의 관심- 빙고게임 형태로 활용함
- 가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빨리 접는 것도 방법임

-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집단을 위해 단어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나눠놓은 칸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음
 - ‘이 아이디어가 어떤 활동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젠더릴레이하고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카드가 여기서 나온 것임
- 교육현장의 교사들과 젠더박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존의 젠더박스과 다른 젠더박스 찾아서 빙고게임하는 방식도 있음
- 성평등이나 성폭력 통념에 관해서 진행 가능함
-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성별로 느껴지는 반응 적기, 위치 확인 가능함. 젠더릴레이뿐만 아니라 차별이나 약자혐오와 같은 내용으로도 진행 가능함

마무리

-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상호 교환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것을 강사가 진행함
- 이 수레바퀴 방식(교차성)을 적용해봤더니 남성들이 열심히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음. 큰 기대 없었으나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재미를 찾아가는 것 같음

4. 젠더교육과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

- 1) 모둠 토론
- 2) 모둠 내 개인활동
: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

1) 모둠 토론

- 주제 :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네 가지 원리 중 “그룹에 부여된 한 가지 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내용을 카드에 적어 전체보드에 붙이기(30분간)

• 모둠활동 내용

1조 토론 주제 : 참여학습

- 역할극 : 기존 이야기 / 직접 대본 써보기 / 사진·그림 속 인물 대사 만들어보기
- 단어의미 얘기 나누기
- 자기 이름의 의미 말하기 : 성인 대상. 아동청소년은 형용사를 이용한 별칭 짓기 → 여기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발견 할 수 있음(항렬 사용, 여성이름과 남성 이름에 나타나는 성찰별 발견 가능)
- 마인드맵, 포스트잇 활용 : 주제대로 쓰고 의견 나누기
- 영상·이미지 보고 느낌,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배우고 싶은 내용을 교육 전에 설문하거나 교육과정에서 함께 만들기
- 2인1조로 소감 나누기 : 하브루타 공동체 작업
- 권력관계를 알 수 있는 활동 구상 : 공동체 규약을 같이 제작하여 하나씩 짚어가며 공동체에서 약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자기 몸에 대한 설명 써보기: 자신의 신체를 그리고 불편한

곳이나 이미지 써보기

2조 토론 주제 : 비판적 사고와 열린 사고 개발

- ex. 낙태 이슈 ‘생명윤리’ 수업에서 청취한 경험. 카톨릭 신부
 - ▶ 콘돔 : 누구나 살 수 있으나 검색창에선 19금?
 - ▶ 부모가 자식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 했을 때?
- 그룹에서 하나의 질문 만들어 무작위로 뽑게 하기
 - ▶ 주제: 키워드를 주고 구체적인 질문을 그룹에서 만들자
- ex. 미디어 시대, 기사 검색을 통해 ‘정조’, ‘순결’, ‘성폭력피해자’, ‘여성 성적대상화’ 등 젠더와 관련된 기사 찾아보기, 시대 별 ‘젠더’ 필터로 기사 보기
- ex. ‘짧은 드라마’ 보여주고 댓글 분석하기, ‘쓰레기 댓글’ 바꿔 보기
- 교육대상 : 누구나(청소년, 성인 등)
- ‘키워드’ 주고, 질문 구성해서 다른 그룹에게 토론 주제 넘기기
 - > 공유(모두) ↘, 논쟁의 지점을 공유한 후 강사가 정리

3조 토론 주제 :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

- 주제를 정한 후 → 두 그룹으로 나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 자신의 쪽으로 이끌어 낸다 → 통념을 드러낸다
- 젠가를 통한 작업 : 젠가에 ‘여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 ‘남자라서 듣기 싫은 말’을 써넣고 뺨
 - 내용 :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 가령 ‘암전해야 해’ → 나는 그것이 싫고 → 왜 싫은지 → 그냥 빼어 놓든지

- 교육장 여건에 한계가 있을 때 : 다양한 사례를 통한 경험 성찰(기사)
 - 울브라이트- 장관의 손녀가 국방장관은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는 기사 사례
 - 엄마가 청소, 아빠가 밥을 하는 역할 분리된 가정의 아이는 부엌은 아빠가 하는 것으로 인지해서 교실에서 싸움이 났다는 사례
- 성평등 주제를 주고 보드게임 만들기
- 개인의 경험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말할 수 있음
 - 안전성, 촉진자의 열린 사고 및 안전함이 보장되어야 함

4조 토론 주제 :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

- 개인의 경험을 드러낼 도구 활용하기
 - ① 그림책 활용 :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선택, 결정), ‘기분을 말해봐.’(감정 드러내기, 발달장애인 교육 시 활용)
 - ② 그림 그리기 :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가정폭력 상황 그리기,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 ③ 몸 이미지를 활용한 젠더의식 드러내기(몸매, 코르셋) : 자기 경험 발설(언제, 어떻게, 어떤 경험 → 감정)
- 성별고정관념 어휘 모으기
 - 사실여부 확인
 - 고정관념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기(ex. 활동지, 화이트보드 활용)
- 성폭력 낱말카드 : 카드 활용(6개씩 중 1개 선택) → 성폭력

통념 발화 → 토론하고 정리 → 발화과정을 통해 성찰하기

5조 토론 주제 : 참여 학습

- 역할배틀
 - ① 성 역할 배틀
 - ② 상황배틀(직장 내)
- 경계교육
 - ① STOP : 상대가 가까이 올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STOP
 - ② 끈으로
- 동의교육
 - ① 주먹 펴기
 - ② 1,2,3 게임
- 대응 언어 찾기
 - ① 혐오표현 대응전략 말해보기
 - ② 댓글 바꿔보기
- 주어진 문장을 몸 표현 맞추기

6조 토론 주제 : 사회 정의, 행동주의, 책임성에 대한 독려

- 콘텐츠 시청 후 소감 나누기 : 비판적 의견 제시함
-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시 공간 논의까지도 필요하고, 실천적 행위가 늘 공존해야 함
- 참여형 게임 진행 후 사회현상에 비유해 보기 : 바둑알 게임. 바둑알을 나누어준다. 다른 참가자가 알지 못하게 몇 명에게

특별히 많이 준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누가 많이 가졌는지 세어본다.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지식·권력에 도전하기 위해 안전한 공간 만들기
 - 지식 권력자가 부재한 공간 만들기(권력자 배제)
 - 나중에 말하기 쿠폰(패스권)
 -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해도 괜찮아’가 공존하는 것
- 규칙만들기를 할 때, 만들기 위한 조건도 고려하기
- 책임성에 대해 논의할 때, ‘권력’을 인지하는 게 선행되기
-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기

의견보태기, 소감 나누기

- 참여학습을 활동으로 구성할 때, 예로 상사와 하급자를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40~50분 길게는 2시간 이내에 진행될 때, 목표가 세밀하게 반응을 체크하지 않으면 위험소지 우려. 자기 표현에 대해 내면화할 시간이 적고, 그 결에 대해 섬세하게 감정적으로 살피지 못할 것. 그 상황에 대한 체험, 내면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사유 방식으로 좋으나 짧으면 찝찝함. 오히려 아이들한테 했을 경우, 설계의도와 달리 역할 고정화될 우려. 역할극으로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내면화하거나 체험할 경우 디자인하는 사람이 섬세한 관찰이 필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일회기로 하기에는 우려가 있음. 디자인하는 사람이 잘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진행자 피드백

- 오전 쉬는 시간 섹션에서 해볼 텐데,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한 번 실습해볼 예정.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을 시도해봐도 좋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아이템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음. 한정된 시간 내에 4회기 만나기도 힘들고 일회성에서 끝나는 교육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 필요함. 교육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성관계에서 동의개념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일종의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연극으로 재연하고, 재연한 연극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식이었음. 이것이 FAQ가 섬세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교육효과 떨어짐. 예상시나리오 하나 갖고는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만 가지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면 학습자의 질문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육효과가 떨어짐.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가 필요함. 참여식으로 다 좋지 않음. 이따가 역할극 정도는 이 정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해봤으면 함

• 모둠토론 내용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1

- 3가지 방식으로 논의함

- 1) 도구 활용 : ① 그림책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인적 경험-기분 좋고 나쁜지 개별적으로 말하기 ② 그리기 도구 -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개인적 경험 나누

기 ③ 몸이미지 활용- 디테일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충 그려진 것으로 자기 나이 또래에 바른 몸체에 대해 말하기

- 2)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어휘를 모아서 일상에서 작동하는지 설명, 화이트보지 활용
- 3) 분단구성, 경쟁과정에서 맞지 않는 표현인지 토론과정에서 조력자가 잘 설명하면 성찰기회 제공. 발설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2

- 주제를 정한 후 두 그룹 분리하여 타당한 논리를 갖고 타인 설득. 이 과정에서 통념 드러내기 할 때 조력자가 정리하여 추후에 개념정리
- 젠가 활용 : 여자라서·남자라서 듣기 싫은 말이 적힌 젠가를 들고 개인적 경험 나누고, 받기 싫은 단어를 중간에 내려놓고, 성역할 고정관념 젠더박스에 대해 토론
- 핫시트 역할극 : 장애여성 등 역할극으로 질문하기 방식. 이런 학습과정은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의견보태기, 소감 나누기

- 교육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수업시간이 40분인데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인 사업장에서는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화되지 않도록 발표 시 대상이 누구인지도

발표해달라 요청함. 그림책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종사자, 그리다는 가정폭력 경험대상 내담자, 몸 이미지는 학생 대상임. 두 번째 젠가팀 등은 초중고 학생들임

- 개인적 경험을 나누기에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교육시간, 환경, 교육 횟수가 중요할 듯함. 얘기나온 것을 잘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함. 따라서 그냥 끄집어내기보다 잘 정리하고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함
- 개인적 경험을 말할 때, 강사가 가진 가치관과 사회정의, 행동주의, 책임성을 독려를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텐데, 강사가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방법은? ‘상황에 대한 효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옳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침. ‘어떤 방식으로 해야 참여자가 설득할까?’

진행자 피드백

- 각 주제에 대해 두 팀씩 토론했음. 피드백하면서 알게 된 것은 참여학습과 개인적 경험에 가치부여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임. 즉,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는 참여자가 어떠한 결과로 그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강사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지, 참여학습을 통해 개인적 경험에 가치부여를 하는 것이 아님. 즉, 학습자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참여학습에 한정짓지 말고 학습자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으면 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야 함

사회정의, 행동주의, 책임성에 대한 독려1

- 주제 파악에 시간 소요됨. 방법론보다는 태도측면에 대해 토론함

- 1) 콘텐츠 시청 후 소감나누기 : 가폭피해 여성들과 진행해봤을 때, 말하는 것 자체가 해방감 또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기
- 2) 바둑알 게임 - 한두 명에게만 더 많은 바둑알을 더 나눠주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바둑알 주기. 끝나고 나서야 누군가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됨. 내 의지나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것이 힘든 구조에 대해 말하기
- 3)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의견보태기, 소감 나누기

- ‘누군가 바둑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는 어떡하지?’ : 애초에 목적인 이 게임을 설명할 수도 있음

진행자 피드백

-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는 무엇일까? 그래서 참여학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가 학습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제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 추측해봐라. 2단계에서 학습자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교수자가 의도하는 방향성에 관한 것임. 내 교육 콘텐츠가 이 주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학습

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부여가 되고, 이것을 사회정의와 행동주의, 책임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교육 콘텐츠가 이 네 가지 원칙이 통합된 교육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함. 내일 실습예정

비판적 사고와 열린 사고 개발

- 참여대상의 연령, 시간, 교육경험 여부, 청소년 전용 카테고리 등 변형 가능함
- 통념 비판적 사고 : 미디어 성폭력 사건 다루는 기사 내용을 연도별로 예로 70년대는 가해자 피해자 부모에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약혼식을 하라는 판사 판결 기사, 80년대, 90년대 등 연도별로 피해자에 대한 시선에 대해 분석, 발표
- 2시간 정도 충분히 하거나 그러지 못했을 경우, 시대별 사용 언어에 대한 분석과 미디어에 실 댓글을 보여주고 바꿔보기 등 비판적 사고로 댓글 바꿔보기. 청소년과 성인 모두 사용 가능함
- 중고생의 경우, 피임에 대해 간략히 강사가 전달하고, 주제어와 질문, 제시어를 전달하고 모둠별로 진행. 경험이 있으면 피임, 콘돔 등 단어를 제시어로 사용하거나 경험이 없다면 청소년은 콘돔을 살 수 있는가, 피임은 누가 준비할 것인가 등 질문을 던져서 답변 준비할 것

의견보태기

-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음. 교육 내용과 콘텐츠 구성방법에서 교육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화 또는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에는 생각의 장을 열고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밖에 못 보니 생각의 장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함. 구조가 어떠하고 각자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음
- 댓글 비판하다가 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본 적이 있었음. 강의실이 난장판. 수강생의 인식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때, 2차 가해 발생함. 강의실에 피해 당사자가 있었고 강사에게 항의하다가 강사가 수용성이 없어 교육이 망한 것을 봤음. 실제 학생들 만나는 수업을 진행하고 중고생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참고로 했었음. 방어기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피드백 수업이 가능. 앞에 충분히 강사가 설명하고 이런 비판적 행동을 댓글 바꾸는 것을 실습해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토론 가능

진행자 피드백

- 비판적 사고와 열린 교실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수자가 내 가치관과 상충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임. 앞서 학습자의 자기경험에 대한 가치부여가 나왔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에 맞게 이끌고 싶은데 가부장제의 역사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나또한 자유롭지 않기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즉, 비판적 사고를 학습자가 같이 할 수 있으면 교육목적을 달성한 것이며, 교수자가 내 안의 상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임. 내일 실습에서 각자가 설계한 학습콘텐츠가 진행되다가 상충되는 방식으로 반응될 때 내가 갖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캐치해 볼 예정임

2) 모둠 내 개인 활동 :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모둠별 4~6인으로 새로운 멤버들과 모둠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교육활동가 1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봉투 안에서 한 장의 시나리오를 뽑아 지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을 구성원 모두가 돌아가며 수행하되 1인당 5분의 교육을 수행하고 5분간 구성원들과 평가한다.
- 교육활동가 외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시나리오

- 성평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나이든 사람으로 남성이 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으며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체중의 차이를 비교한다.
- 수다스럽고, 자신만의 의견이 있고, 듣지 않으며, 너무 많은 지점을 취하려 한다.
- 조용히 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 젠더는 여성과 남성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여성만이 말하거나 그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 젠더는 자연적이지 않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로 태어났다.
- 스스로를 유동적 성별로 간주하고 성별 정체성이 없으며, 이분법적인 범주의 모든 형식을 거부하고 성별의 모든 개념에 도전한다.
- 성평등에 동의하지만 문화 그 자체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믿으며 ‘성에 관해 말하기’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 성별 차이 간의 평등을 강하게 믿으며, 여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젠더가 억압의 지배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 한국의 여성문제에 수십 년 간 종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모든 곳의 젠더문제에 대한 내 지식의 기초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 그룹 작업 : 역할극 (60분)

1. 교육활동가 1인 선정, 섹스/젠더에 관한 교육내용 준비

- 돌아가며 구성원 전부 한번씩 이 역할을 맡는다.
- 청중 역할을 맡은 구성원은 봉투에서 자신의 역할이 적힌 문장을 뽑고 지정된 역할에 충실히 수행한다.

2. 교육활동가 역할을 맡은 사람이 5분간 교육 실행

- 교육 진행 중 청중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
- 이번 역할극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원칙에 의거)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느낀 점 등을 카드에 기록하고 다음 구성원의 차례로 넘어간다.

3. 활동 마치면, 함께 gallery work 후 전체 토론

• 활동에 대한 전체토론

- 학습자의 생뚱한 질문에 다시 질문하면서 오류를 생각할 기회, 같이 고민하자 제안하니 정리가 됨.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더한다는 수용성이 좋아보였지만, 당황하는 모습이 있어 약간 염려가 되긴 함. 강사라고 모든 질문에 응대할 필요가 있는가?(예시. 기다리고 일단 들으세요.)
- 전부 다 응대하고 수용하다보면 중구난방 되다보니 목적을 잃어버림
- 중구난방으로 다 떠드는 사람을 부딪혔을 때 어땠나. 머리 아프지 않았나 다 응대할 수가 없음. 애초에 이 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그럴 필요는 없겠으나 개인적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열린 교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수업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에 답해주고 너무 지체되거나 그러면 딱 멈추고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나중에 질문할 시간을 주겠다 하면 좋겠음
- 들어가면 기운이 느껴짐. 딱 봐도 이상한 질문 할 것 같으면 선수 치는 것도 방법.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오늘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음
- “칠판에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하고 진도는 나감. 조금만 기다려라 수용태도와 거부하는 액션으로 기록을 해볼 수 있겠음

진행자 피드백

- 강사로의 5분은 어땠는가? 생각보다 5분은 엄청 깊. 지금 느낀 5분 동안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기를 바람

5. 교차성과 남성성, 저항 다루기... 그리고 다시 교육설계

- 1) '저항 다루기'에 관한 역할극
- 2) 저항의 유형과 대응 전략
- 3) 모둠 활동 : 그리고 다시 교육설계
- 4) 개인 활동

1) '저항 다루기'에 관한 역할극



세션 목표

개괄

역할극을 위해 참가자들은 3인 1조로 작업한다.(역할: 강사, 반대자, 관찰자)

- 한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 저항의 형태를 취한다.
- 두번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과 협상하거나 입장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사역할을 수행한다.
- 세번째는 관찰자로, 협상가가 반대자의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그들이 어떤 전략과 논거들을 사용하는지 관찰한다.

Step 1: 역할극

Round 1

1.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정해준다. 반대자는 (리스트에서 혹은 다른 소스로부터) 저항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고른다.
2. 반대자가 역할극을 시작한다.
3. 관찰자는 메모를 한다.

Rounds 2 and 3: 5분후 역할을 바꾸고 새로운 반대자가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Step 2: 관찰자로서의 분석

1. 관찰자의 역할을 맡아서, 강사에 의해 사용된 다양한 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2. 상위 세가지 관찰 의견을 준비한다.(3분)



13



예시 문장들

1. 젠더? 그건 페미니즘이에요.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요.
2. 젠더? 그건 게이들이 사회에 들어오게 허용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3. 젠더는 여성에 관한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에 관한 거예요.
4. 젠더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5. 우리는 젠더 이슈를 다룰 여력이 없어요. 빈곤 감소와 기후 변화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6. 우리한테는 젠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여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14

• **모둠활동 사례(1개 팀의 내용을 샘플로 제시함)**

한 모듬의 역할극 진행 내용

- 강의자 : “섹스와 젠더가 어떤 의미이고, 젠더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수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 반대자 : “남성답게 키워지고 여성답게 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애들은 조신해야 하고 얌전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페미니즘 어찌고 하면서 여성들이 다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뭐 다 피해만 있나요? 우리 부모 때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살아온 맥락이 있는데 다 문제라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뭐 말 한마디 못하겠고.. 다 불편해요. 우리 문화도 아니고요. 외국이나 그렇죠. 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 강의자 :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흔히 있는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요.”
- 반대자 : “살다보면 좀 친하게 지내려고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다 문제다 피해다 이러면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요.”
- 강의자 :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반대자 : “중간이요.”
- 강의자 : “그러면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반대자 : “뭐 꼭 그래야할 필요는 없죠.”
- 강의자 : “그렇다면…”

역할극 후 소감나누기

- 뭘 이야기해야할 지 모르겠음. 실제로 강의현장에서 맥락에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함.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하나씩 해체해나가면 좋을 것 같음. 보통 일반적인 남성의 사고. 직급을 물어보는 질문 좋았음
- 근거 없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 수 있음. 질문을 다시 되돌려주고 칼을 쥐는 것. 강사와 수강생이 한 편이라는 것.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킬 것
-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질문을 되돌리는 것. 어떤 문제 행동을 성별의 특징으로 설명하지 않게 하는 것

역할극에 대한 전체 토론

- 학습자를 수용하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주도권을 강사에게 가지고 오는 방법
 -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야할 주제는 이쪽이라 이것 먼저 이야기할게요.”
- 학습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맥락적인 배경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처하기가 수월함
- 저항하는 발언자의 위치성을 보거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

- 기. ‘나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기
- “질문자님 주변인도 이 대화가 불편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저항하는 사람일 경우에 질문자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 강사와 토론자, 두 명의 토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나머지 학습자를 버리는 시간이 됨을 염두에 둘 것
 - 논쟁으로 승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 질문 안에서 수업의 주제를 찾아야 함
 - “기후 변화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은?”, “빈곤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은?”
 - 질문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개인적 경험을 묻는 방법
 - ‘보나마나 ~하겠지!’ 하는 수강생을 대하는 방법
 -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할지 한 번 들어보세요!”
 -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수업 때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강의 주제가 무엇인지 주지시켜주기
 - 무례한 말은 정색하기
 - 강사가 (성적)대상화 되는 답변은 하지 않기
 - 강사가 전문가임을 알려주기
 - 저항에 평정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 스스로 전문가라는 확신이 있으면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이 혹시 더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끝난 뒤에 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제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사의 태도
- 강연장에서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 그게 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 - 그러나 “네 딸이라고 생각해봐”의 방식은 적절치 않음. 가족주의를 강화시키고 ‘가족 아니면 괜찮다?’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고민할 것
- 학교 교육은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는 것. 수강생을 강사 편으로 만들기
 - 수강생 다수가 공감하는 이야기 말하기
 - 강사 마이크의 권력은 수강생이 그 말을 듣고 싶어할 때 생겨나는 것
- 저항자를 협력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 저항의 내용을 수업 내용으로 가져오기
- 수업에 반전을 부여하는 것으로 흥미를 끌어보는 것. 내 수업 점검하기
- 질문자의 질문에서 출발하기
- 잘 모르는 분야가 나왔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토론에서 강의로 다시 전환하기
- 감정적인 저항감에서 기반하는 불편한 감정의 기원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기

- “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 저항자의 맹점을 알고 있는 강연자가 설득을 시도할 때 ‘접속사’를 잘 사용하는 요령
 - “그런데 ~ 하지만~ 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상되는 질문 미리 차단하기
- 내가 얘기하려는 것을 자꾸 저항을 담은 질문으로 남길 때
 - “이따 할 얘기에요~~”
- 내 강의가 성공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 단순히 질문자에게 이기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하기

• **활동 총화 내용**

Q1. 관찰자들의 의견 중 공유할만한 상위에 속하는 것 3가지

- 1팀) 첫째 주도권을 뺏기지 마라. 노인분들 대상으로 할 경우 젊은 강사들이 겪는 어려움일 것. 둘째 학습자에 대한 배경지식 필요 - 학습자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대처하기 쉬움
- 2팀) 첫째 저항 발언하는 발언자의 위치성을 볼 필요가 있음. 당사자의 위치성을 보게 해주는 것. 예로 저항으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기후변화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질문하기. 약자, 젠더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 개인이 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지 위치성 확인하도록 하는

것

- 3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저항하는 발언자인 경우가 많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 질문자가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바닥을 드러나게 하기.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Q2. 강사와 학습자 사이에 저항이 있을 경우, 논쟁이 흐를 경우

- 이런 경우 나머지 학습자를 버리게 되는 상황 초래. 나머지 학습자가 소외되고, 논쟁으로 승복될 가능성이 적고 감정싸움으로 번짐. 자료집 읽어보면 강사는 도구와 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젠더분석에 시간 할애하고, 저항에 대해 정확한 수치, 통계 등 활용하여 내가 진행하려는 교육주제와 정보와 사전 준비, 능하게 다룰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역할극 해보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임. 역할극은 세팅된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설계되어있는 것임. 교육의 목표가 자신들에 의해 찾아가도록 하는 것임. 강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내일 의논해볼 것임. 그중에서도 저항감이 매우 집단적으로 극렬하게 있을 경우, 특히 다른 권력(나이, 성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의논할 예정임
- 부탁, 당부 방식. '저항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알려 달라.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통합해서 믹스해보자.'라는 방식
- 오늘 교육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을 통해

오늘 교육의 목적을 환기

Q3. “지금의 이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저는 그냥 밟아버렸어요. ‘오늘 전문가의 자격으로 왔으니 들어보고 평가해달라’라고 하면서 밟았어요. 그러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원칙에 비추어 반면교사의 예시로 봐 주세요.”

- 4팀) 우선 저항에 평정심 유지 필요. 같이 싸우면 안 됨. 실제 사례로 갈 경우 큰 저항이 예상됨으로 평정심 유지. 두 번째로 적절한 사례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기 쉽도록 함. 세 번째로 저항의 멘트에 대해 재질문함으로써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Q4. 저항자의 저항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 삶의 역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 다음 교육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 재설계 필요

- 5팀) 저항하는 청중의견에 말려들지 않고, 긍정적 대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강사의 태도
- 6팀) 강사와 수강생이 한 편이라는 인식을 주지시켜주는 것. ‘같은 편, 당신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라는 인식.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확인하고 없으면 잘라버리는 것. 순간 화나지 않도록 질문자의 우스꽝스런 이미지 상상하여 화를 누름
- 7팀) 고민지점이 많음. 저항자 중에 나랑 상관없다는 태도를

바꾸어 수용적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함. 그런 공감을 갖기 위해 예시로 ‘딸,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가족주의를 강조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 고민이 필요함

- 8팀) 스토리텔링을 다이내믹하게 하는 경우 저항이 드물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공감이야기 필요. 평정심과 연결되어 내가 전문가라는 자신이 있을 경우, 컨트롤 가능. 강사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 필요

Q5. 두 팀의 간극

- ‘너의 삶의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으나 안 듣고 싶어함.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음. 흥미진진하게 몰입도 있게 해주고 싶을 때는 스토리텔링이고, 드라마적인 요소가 면밀히 들어가야 함.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이크 권력은 내 강의를 저 사람이 듣고 싶어지는 과정으로 설계하는 것. 이 간극을 줄이는 것
- 9팀) 저항자를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 저항의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잘 연결시켜야 하고 강사의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

Q6. 자료에 보면 유엔의 팁에서는 저항하는 자에 토론을 직접 이끌도록 요청해봄. 모둠토론 방식이라면 그 사람에게 사회자를 시켜봐도 됨. 그러나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힘들. 토론문화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음

- 10팀)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 강사의 철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낌

Q7. 이번 4강의 제목은 ‘다시 교육설계’. 그 시나리오대로 잘 해주셨음

- 11팀) 질문자의 질문에서 출발하자, 기후변화같은 잘 모르는 분야가 나왔을 때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토론방식으로 재세팅, 저항이 많은 경우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하여 그 저항을 다시 전환, 감정에 대해 되묻는 방식으로 전환

Q8. 미투운동 이후에 잠재적 가해자라고 반응하는 남성들.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통해 교육 목적으로 다시 토론으로 재전환.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불편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

- 12팀) 감정적인 것과 관련 불편한 감정 묻기, 저항자와 논쟁하지 않고 접속사를 잘 사용하기 - ‘그런데, 그렇죠 대신 음 그리고 이런데서는….’
- 13팀) 저항을 강사가 준비한 교육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인
- 14팀) 강사는 여성으로 들어왔는데, 남성들의 성욕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나며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음. ‘누가 ~~~카더라’보다는 ‘여기서 나는 ~~~’가 필요하다.

저항에 대해 이해하기

- 저항을 확인하고 숙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시 만들어 민주적 실천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킨다.(Prugl)
- 강사들은 참가자들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한다. 자원 부족과 같은 제도적 혹은 프로세스 관련 요소가 작용할때, 참가자는 그룹 토론에서 함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Mergaert)

Source: UN Women Training Centre (2015) Report: Virtual Dialogue. Resistances i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6 - 13 May 2015). UN Women Training Centre: Santo Domingo.

저항의 기원

- 젠더와 젠더평등의 다른 의미들
- 인식론적 차이들
- 지구적 담론의 힘에 맞서기
- 젠더화된 자아(Mukhopadhyay)
- 성인지 교육은 정치활동이다. 교육은 단지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이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저항은 그러한 교육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Source: UN Women Training Centre (2015) Report: Virtual Dialogue. Resistances i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6 - 13 May 2015). UN Women Training Centre: Santo Domingo.

저항 다루기

- 교육을 의뢰한 기관의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강사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가능한한 참가자들의 현실과 가까운 정확한 사실, 수치 및 사례를 포함한다. 강사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와 절차에만 의존하기 보다 젠더 분석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교육은 단지 젠더를 수행하는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젠더 수행의 정치학에 관한 것이다.
- 강사는 젠더 개념에 대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예-구조화된 피드백 세션을 열고, 저항이 있는 참가자들에게 토론을 이끌도록 요청한다.)
- 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자율성이 옹호되어야 한다.

Source: UN Women Training Centre (2015) Report: Virtual Dialogue. Resistances i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6 - 13 May 2015). UN Women Training Centre: Santo Domingo.



2) 저항의 유형과 대응 전략

※ 출처 : UNDP(유엔개발계획),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젠더(2001).

저항 유형	정의	대응 전략
부인	부인은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 납니다. 자신들 국가(혹은 공동 체나 종교)에서는 성평등이 관 심사가 아님을 내비치거나, ‘이 프로그램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언명하는 것처럼 단 순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은 ‘문화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 다.	젠더 불균형과 차별적 관행을 문서화한 타당한 경험적 증거 (통계, 구술사, 확실한 연구)를 제시합니다. 일례로, ‘여성은 농업에 관여하 지 않는다’는 신화나 가정을 불 식시킵니다. 젠더 대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보다 큰 파 급효과를 위해 모든 사람을 참

		여시키는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식적 (명목상의) 조치 취하기 (token-action)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등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꺼립니다. 이들은 종종 젠더 불균형에 대한 제한된 평가에 기초한 특정 프로젝트(혹은 어떤 프로젝트 내의 한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여성을 ‘취약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받을 때, 특정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확인 단계뿐 아니라 계획 수립의 전과정에서 평등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니셔티브(주도권)의 궁극적 영향 및 결과, 그리고 누구에게(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프로젝트의 여러 측면에 걸쳐, 다양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겉말 (립서비스)	이 전략은 수사적 수준에서는 문제를 인정하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여성”을 대신해서 말하기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하나의 입장과 관심사를 가진 동질의 집단으로 가정합니다. 한두 가지의 경험은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진술로 일반화됩니다.	여성들의 공통 관심사와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를 찾아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인지 참여 방법을 사용하도록 촉구합니다.
구획화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등 이슈를 범분야적(cross-cutting : 모든 분야에서 공통	성평등 문제가 업무와 어떻게, 왜 연관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계

	<p>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여성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모든 행동을 위임합니다. 이는 사실상 평등에 대한 우려를 일개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p>	<p>획 수립,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젠더이슈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촉구합니다.</p>
<p>주류화에 대한 오해</p>	<p>전략으로서의 주류화에서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남녀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주류화 전략의 목표로 여성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방법에 주안점을 둡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므로 여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p>	<p>이니셔티브로 인한 효과에 주의를 돌리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젠더 불균형을 확대시킵니까? 보다 평등한 젠더관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p>
<p>토크니즘 (Tokenism) * 채용이나 임명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상징적으로 포용하지만, 실질적 권한부여는 하지 않는 명목주의.</p>	<p>한두 명의 여성이 위원회에 임명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됩니다.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이 바로 그 이유로 선정될 수 있고, 혹은 평등 이슈에 헌신하는 여성을 뽑는 경우라 해도 그녀가 전체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수 있습니다.</p>	<p>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이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이 “토큰”으로 선출된 여성이라면 공적 구조의 안팎 모두에서 지지자들을 찾으세요.</p>

3) 모듬 활동 : 그리고 다시 교육설계

- 주제 : “이곳에 와 본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5분 이내에 이 공간을 설명하라.”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모듬 토론을 통해 설명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로 전화를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누군가 공간을 설명할 때는 눈을 감고 설명에만 집중하라. 무엇이 떠오르는지 기억하라. 설명이 끝나면 다 함께 토론한다.

• 소감 나누기 및 총화

전체적인 소감

- 5분이 생각보다 길었음
- 설명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잘 연상됨. 실질적으로 학습장으로 연상되어 좋았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길안내, 물건 소개가 좋았음
-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나, 이것도 순서가 있었으면 좋았겠음. 강의장 설명, 부대설명, 오는 길 등 전개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음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가 아니었음. 오는 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음. 처음 오는 경우에는 건너뛰는 정보 내용들이 있었음
- 첫 번째 모듬 발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음. 박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유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음. 왜 이런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금

- 첫 번째 조 답변 : 공간을 설명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누구냐에 달라질 수 있음. 위치정보는 일단 설명하려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정하고 작업하게 된 것임. 그룹토의 약간 미흡
- ‘저항다루기’ 이후에 해서 그런지, 저항집단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집중력이 흐려짐. 그래서 이 저항집단에게 이 공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 필요함
- ‘이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반대로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정보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청자로 끌어들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진행자 피드백

- 이미 이 공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집중해서 듣지 않음. 내 얘기를 알고 있던 그걸 재설계하라 그 얘기였음
- 이미 아는 자가 전혀 모르는 자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가. 아는 자의 경험을 다 알 수 있을까? 친절한 안내, 시연을 충분히 해봐야 함. 듣는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가 맞는지 등 확인 작업 필요함
- 젠더 관점은 사실을 보게 하거나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 보여지는 것 외에 다른 것, 다른 질서, 다른 움직임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 사회적인 권력관계가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뒤편까지 함께 보려고 해야 함

- 다시 질문하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교육 이후에 만족도가 5점 이상이어도 늘 변하지 않고 있다고 믿어야 함. 성평등 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음
- ‘권력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있는가? 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서 얻는 이득은 누구의 무엇이고 무엇을 향하는가? 정말 진짜 필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왜? 어떻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것이 바뀌려는 에너지가 되도록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질문하기

4) 개인 활동

● 지금 나를 불타게 하는 질문들 적어서 카드에 붙이기

• 카드에 적힌 질문들

- 저항 강한 학습자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 학습자의 저항들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학습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인가?
- 1. 논리적, 차분한 저항자가 어렵다. 2. 질문자가 스스로 말해서 영혼이 털리게 하기(스스로 자기 지점을 볼 수 있게) → 반문하기 3. 다른 수강생이 있음 자각하기
- 저항 → 교육 내용으로 짚어주고 → 교육 연결 / 저항자 → 협력자로 / 강사의 철저한 자기준비 필요
- 여성주의 교육학 원리의 공교육화, 제도화는 어떻게?
-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 젠더를 알아야 할까요? 왜 젠더폭력을 알아야 할까요?
- 지금 나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워크숍이 거듭될수록 학습자를 만나는게 두렵고 부담된다. 좋은 trainer란 무엇일까?
- 핵심을 못 찾고 빙빙도는 너를 어찌하냐!
- 지금 내가 하고 다니는 내 교육에서 수정해야 할 곳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을까?
- 지금 나를 불타게 하는 질문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 젠더, 성별고정관념 인식 → 벌써 뻘하고,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지루하고 →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떻게 해야 하나?
- 성평등과 자본주의 구조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자본주의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가? 남성이 기본값이고 여성이 덜 받는 것인가? 여성이 기본값이고 남성이 생계부양의 의미를 더 받는 것인가?
-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 짧은 교육시간 안에 어떻게 참여학습을 넣어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 “저항 다루기” 내가 회피하고 있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 **질문에 대한 토론 내용**

- 짧은 시간 안에 참여교육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원래의 제도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 또는 달라야

할까?

- ↳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와 동일한 부분이 있기도 함. 그러나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는 사회 구조적으로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에 표현하는 방식이나 언어에 차이가 있을 것임. 지금까지는 남성주의적으로 논리적 이론적인 부분을... '사회적으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감성적인 부분을 장점으로 다를 수 있음을 고민해봄
- ↳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를 거 같다. 이미 기존 교육학에도 페다고지 원칙 네 가지는 다 들어가 있음. 그러나 결과와 과정을 함께 본다면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생각. 기존 공교육은 참여학습을 하더라도 연령별 목표치, 이상적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참여학습.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함. 개인별로 다른 수준에서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
- ↳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따라 나뉠 거 같음. 초등학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개인이 있고 개인이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라면, 페미니즘 페다고지가 그것에 녹아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음. 현재 교육학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음. 최고의 목표치라는 게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라면, 페미니즘 페다고지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 참여학습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직접 참여자가 활동하는 게 참여학습이 아니라 누구를 전문가로 보느냐의 차이.

참여학습을 하더라도 강사가 구조와 개념과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어떻게든 몸으로 체득하는 부분, 주체가 학습자가 되어 정답을 찾게 하는 부분. 강사의 설명을 최소화 하는 방식.

- ↳ 강의가 아니라 훈련이 되는 부분(강사님), 젠더교육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쓰여져야 하고 쓰여질 수 있는 것.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페미니즘만을 위한 것이 아님. 교육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 이론임. 수학을 가르치더라도 $2+10=12$ 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맥락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이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때 주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짐
- ↳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개인적 변화 역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 내가 회피하고 있는, 직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 ↳ 직면하면서 회피하고 싶고, 두려움이 오는 그런 부분.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날 때 변화의 지점을 나중에 확인하면 설렘이 아닐까?
 - ↳ 저항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겨내는 방법은 저 사람은 저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지만 10년 전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너그럽게 인정하기 하기
 - ↳ 교육현장에 있을 때 저항이 커다란 고민거리 중 하나. 회피

와 직면이라는 단어를 페다고지와 연결하면, 페미니즘 페다고지라고 별도로 이야기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언어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음. ‘가치를 뒤흔드는 저항이나 질문을 받을 때 그 순간에 가치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교사로서의 권위와 내가 말하는 가치와 경계를 어느 부분에서 설정해야 할지.’ 가치와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함

- ↳ 수강생이 공격해올 때 이것을 공격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보는 지점.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밟게 되는 것. 내가 밟고자 하는 욕망이 가부장제의 방식.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유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 저항하는 사람은 현재 저항하는 그 부분이 애초에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것. 저항을 드러내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
 - ↳ 저항 없이 이 교육이 가능할까를 고민해보기.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저항 없이 가능한가? 저항하는 층은 어디였는가?’
 - ↳ 저항을 대하는 태도가 여성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일 때 소진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 자신의 밑바닥을 살펴보는 과정. 도 닦는 느낌. 토의토론이 아닌 문화에서 반론을 공격이라고 여기게 됨. 이에 대한 비판점을 공교육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 ↳ 저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태도와 기분을 돌이켜 보는 것
- 사람들이 젠더에 대해 알아야 할까?

↳ 춤을 배우러 갔는데 가보니까 명상이었던 적... 페다고지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이었다. 내가 도달할 수 있을 지 아닐 지 확신할 수 없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것

- 남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 되기 위한 과정을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함

↳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너무 훌륭한 사람임. 그런데 그 말이 페미니스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 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음

↳ 남성인 페미니스트의 발언 : “나는 억울했다. 처음에는. 활동을 해보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렵다. 나는 빨간약을 먹을 수는 없지만 스미스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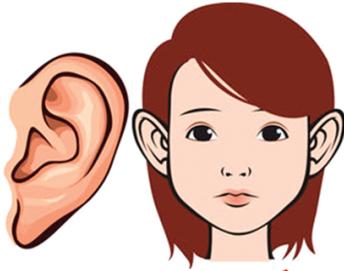
↳ ‘미혼한부모가 아니라 미혼 엄마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미혼부에게 마이크를 너무 쥐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임

6. 교육평가의 다양한 방식과 그것의 목적

- 1) PDPGT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평가 방법**
- 2) 모둠 활동**

1) PDPGT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평가 방법

평가의 다양한 방식



오늘의 '눈'과 '귀'를 통한 학습자 모니터링 방법
이 방식이 갖는 의미와 강점은? 가능한 조건 그리고 한계는?

평가의 다양한 방식

GENERATORS

Exercise "Head-Heart-Hand"

OBJECTIVE: To get feedback from participants on how the training is going

ENERGY LEVEL: Calm and reflective

TIME: 10 minutes

SUPPORT MATERIALS: Print the "Head-Heart-Hand" tool you find below

STEPS:

1. Brief on the day
2. Provide participants with the feedback tool, give them 10 minutes and ask participants to collect the 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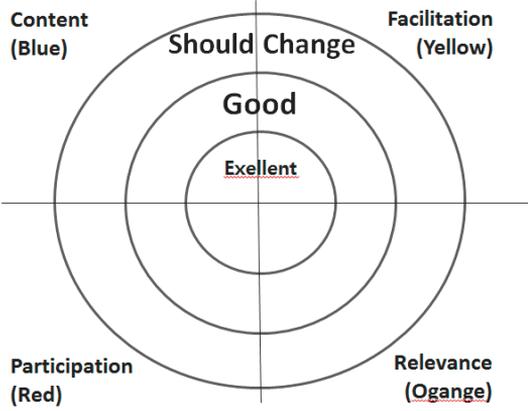
NOTE FOR THE FACILITATOR: Make sure participants don't write their names on the paper, the feedback session must be anonymous.

HEAD	HEART	HAND
What new do you learn today from the workshop?	How are you feeling (related to the workshop)?	What can you do with today's learning?

KIT WOMEN 29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평가의 다양한 방식



평가의 다양한 방식

지속할 것 →

시작할 것 ✓

그만들 것 ✕



2) 모둠 활동

- 우리가 마주하는 교육현장에서 이 활동이 가능한 방법에
관해 아래의 항목대로 토론하시오.

- 조건 : 가능한 교육 인원은? 공간의 구조와 면적? 1회성에 1~2
시간에 제한적이며 대형 집합교육이 대부분인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참여형 평가방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 질문 : 단순한 만족도 조사를 넘어서는 젠더 인식과 전환적 사
고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기술에 관해 토론하고
내용을 카드에 적어 붙인다.

• 활동 결과

◦ 1조

고민되는 지점

1회성 교육, 집합형 교육 → 쌍방향의 평가방식 가능할까?

(하고 싶지만, 현장적용의 어려움)

↳ “평가”의 내용을 어떻게 학습자와 공유·적용, 반영

학습자의 부담을 ↓, 참여↑ → 동심원 평가

: 평가시간의 확보 필요! 평가 이후의 피드백 과정

: 수업의 흐름을 깨지 않는 적절한 평가 시기는?

전환적 사고 확인! 도전! ⇒ “→, √, ×” 포스트 및 평가

↳ 주제어 설정 ⇒ “액션 플랜!” 설정하기로 활용하면 좋

을 듯

학습자 요구분석 → 특히 “학습자 교육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 수용·답을 수 있는 평가!!!

◦ 2조

Q. 젠더 인식과 전환적 사고에 도달했는지 평가의 방식으로 가능한가?

- ① 교육 전 사전설문 or 기대
- ②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기

※ 대규모 집단

- ① 강의 전 임의로 자리에 선물과 눈, 귀 카드(+ tool은 ‘머리-심장-손’ 양식으로) 평가 부탁
- ② 교육 후, ‘작고, 현실적, 실현가능한 변화의 생각, 행동’ 포스트 잇에 써서 붙이기
- ③ PPT에 ‘머리-심장-손’ tool 띄우고, 그 양식에 맞춰 포스트 잇에 써보게 하기
- ④ 교육 후, 느낀점, 소감 나누기
○, × 퀴즈도 가능

Q. 1회 교육에서 ‘인식, 전환적 사고 확인가능할까? 그런 평가방식이 있을까?’ 여전히 의문임

◦ 3조

조건

- ① 가능교육인원 : 30~40명
- ② 공간 : 강의장소면 OK
- ③ 가능한 참여방식
 - 포스트 잇 쓰기(좋은 것/아쉬운 것)
 - 스티커 붙이기
 - 사전 설문지 / 사후 비교, 자기점검
 - 사전지식 / 배움 / 느낌(현장에서 쓰기)
 - ex)담당자에게 눈과 귀 역할 요청
 - ex)현장에서 평가 공유 못하면 마치고 기관에 따로 공유

◦ 4조

조건

- ① 교육설계에 평가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배치해야 함
- ② 교육시간 중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간에 반영할 수 있음
- ③ 실시간 온라인평가
 - ex)Sli.do : 실시간 교육생과 강사 모두 확인 가능

질문

- ① 평가방법과 기술이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생들의 요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5조

평가조건

※인원, 공간, 구조

- ① 인원수보다는 공간·구조·시간이 더 중요
- ② 인원에 따라 방식 적용
- ③ 평가 활용주체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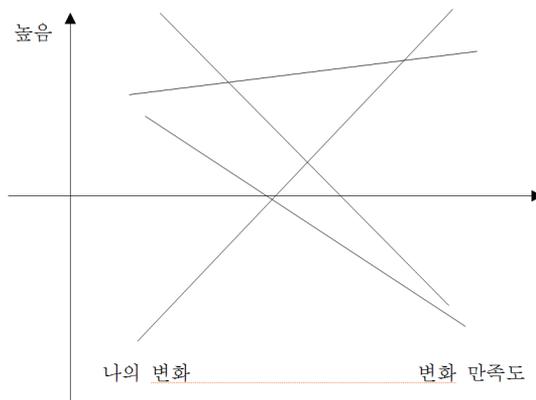
전환적 사고

※원칙

- ① 강의 안에 평가가 녹아날 수 있도록 하기
- ② 평가 자체가 활동(수업) + 정량평가가 실제로 가능한가?

※방식

- ① 머리, 가슴, 손 활용 : 수업활동자체로 적용하기
- ② 전환그래프 그리기



변화적용 가능선

- ③ “→, √, ×” 방식을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적용하기
ex) 불법촬영 해결책

◦ 6조

평가조건

※대형 1회성 집합교육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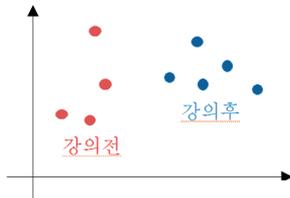
- ① 수업과 관련된 목표나 중요 키워드 5개 제시 → 이상형 월드컵같은 토너먼트 프로그램 활용

: 30~50명 / 모둠활동이 가능한 공간, 결과지 부착이 가능한 공간

⇒ 주어진 4가지 평가방식이 적용가능한 조건

- ② 신호등 색지카드로

- ③ 사전/사후 인식도 : 좌표 점검, test지 활용



- ④ wow / 아리송 / 지루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평가활동도 수업!

- ⑤ 온라인 설문 → 실시간 그래프화 점검

가능한 설문, 평가 질문

- ① 내가 경험한 젠더폭력 써보기

- ②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행동 쓰기

• 모둠 활동 후 카드에 적힌 내용

- ‘눈과 귀’ 는 동료 모니터링인데 이 방식이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할까?
- 이 방식이 갖는 조건과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 세 장의 전지가 있고, 머리 / 심장 / 손으로 나누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붙이기
-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다고 느끼는가? 어떤 영감을 얻었는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는 것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 평가와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
- 인원보다는 공간과 구조와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인원수에 따라 방식이 달라졌으면 좋겠음
- 평가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음
- 강의 안에 평가가 들어가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자체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 그래프 그리기 방식 활용
- 머리가슴손 방식 사용
- 지속 시각 중지 방식은 수강생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갤러리워크 하기

- 와우, 아리송, 지루해
- 좌표 형식으로 전환을 가시화
- 주관식 평가 문항은 어려워할 수 있어 질문을 잘 만들어야겠음
- 나의 오개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음
- 실무 담당자에게 오늘의 눈과 귀 요청하기
- 평가가 폭력이나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것

대규모 강의에 활용하는 방식

- 교육 전 사전설문 또는 기대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소정의 선물과 함께 평가 도우미 부탁하기
- 작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생각과 행동을 교육 후에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게 하기
- 교육 후 느낀 점 소감 나누기나 O, X 퀴즈.
- 1회성 교육에서 인식, 전환적 사고 확인이 가능할까? 그런 평가방식이 있을까?
- 온라인 평가툴이 공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음
- 토너먼트 형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 선택하게 하기(모두닷컴)
- 강의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평가 진행 시간을 확보하고 이후 시간에 반영
- 슬리도 : 실시간으로 의견 제출(<http://www.sli.do/>)

학습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지

- 1회성 교육과 집합형 교육에서 쌍방향 평가방식이 가능할까?

- 평가의 내용을 어떻게 학습자와 공유하고 적용할까?
-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
- 학습자의 부담을 낮추고 참여를 이끄는 방식의 평가 : 동심원 평가, 스티커 붙이기

수업의 흐름을 깨지 않는 적절한 평가 시기에 대해 고민하기

- 전환적 사고 확인 도전 : 지속시작 중지 포스트잇 평가. 주제를 설정하고 액션플랜 설정하기로 활용하는 방식
-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교육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학습자에게 물어보는 것
- 적극적인 수강생이 아니라면 전지보다는 a4용지처럼 작은 종이에 의견을 쓸 수 있도록 수정하기

7. 교육훈련 설계 및 전달

1) 모둠 활동

1) 모둠 활동

● 다음 주제로 젠더트레이닝을 설계하라.

- 주제 : 성폭력 그리고 젠더
- 조건 : 교육대상, 교육시간, 회기, 방식 모두 자유, 단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주요 원칙 적용 필수
- 발표 준비
 - 30분간의 발표를 준비한다.
 - 5~10분간 전체 교육개요를 소개한다.
 - 10~15분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진행한다.
 - 10분간 다른 그룹으로부터 질문과 피드백을 받는다.

교육 설계

• 그룹 토론 : 다음 주제로 젠더트레이닝을 설계하라.

1. 주제 : 성폭력 그리고 젠더
2. 조건 : 교육대상, 교육시간, 회기, 방식 모두 자유
단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주요 원칙 적용 필수
3. 발표 준비
 - 30분간의 발표를 준비한다.
 - 5~10분간 전체 교육개요를 소개한다.
 - 10~15분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진행한다.
 - 10분간 다른 그룹으로부터 질문과 피드백을 받는다.

8. 라운드 테이블 : 교육 설계 모둠별 발표 및 집단 코칭

- 1) 모둠별 활동결과**
- 2) 모둠별 활동결과에 대한
집단코칭 의견 모음**

1) 모둠별 활동결과

◦ 1조

목적)

교사의 젠더감수성 향상

⇒ 일상생활 안에서 성인지관점을 갖고 성평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젠더갈등상황에서 교사의 성인지관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방향을 말할 수 있다.

도입)

관점(관점의 전환, 감수성 점검) → 감수성변화 이야기

전개)

- 섹스 vs 젠더개념정리
- 교차성(위치성 확인) : 힘의 차이, 권력 차이
- 차이가 차별로 작동하는지?

Power walking → 교차성 개념정리, 힘의 차이(권력관계 안에서)가 차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전)

- 여성, 남성 고정관념, 타인의 말과 행동 안에서 겪는 상황
- 교사로서

여성으로 듣는 말이나 하게 되는 말(포스트잇)

남성으로

→ 성평등 약속 언어 만들기, [성평등 약속 선언문]

평가)

◦ 2조

주제 : 성폭력 그리고 젠더

조건 : 중·고등학교 교사(30명), 2시간(90분), *1~2회

참여 개요 : ① 인권, 성인지 감수성

② 젠더릴레이 - speed game 임의로(3~5명)

도입 : 개요, 개괄, 교육이란?

☆ 오늘의 눈과 귀, 머리-가슴-손 평가서

전개 : ① 경계 존중, 동의 개념

② 젠더 폭력과 성폭력

심화 : ① 교사가 생각하는 성폭력이란?

② 2인 1조, 4모듬 gender, sex, sexuality 카드게임

③ 오늘의 눈과 귀 발표

결론·마무리 :

☆ 학교 내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다르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 포스트잇

◦ 3조

주제 : 성폭력 그리고 젠더

교육대상 : 중학교 교사 50명

교육시간 : 90분(단회기)

40' 활동①

10' 쉬는시간

40' 활동②

목적) 교사의 젠더감수성 향상 ← “교차성” 인식을 통한!

목표)

- 파워워킹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치성”을 경험할 수 있다.
- 파워워킹 경험을 교차성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위치성-권력작동!)
- 교차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적 젠더권력을 구별할 수 있다.

도입) 시대흐름과 감수성의 변화

전개)

- 섹스, gender,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의 이해
 - 동화)‘학교 가기 싫어요!’
- Power Walking(참여자의 다양한 위치성과 권력 확인)
- 교차성 개념 정리
- 힘의 차이가 차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설명

평가) 느낌 말풍선

심화)

- (교사로서, 여성/남성) 듣는 차별적인 말이나, 하게 되는 말 (모둠활동)
(모둠별 최악의 차별언어 선정) → 차별언어 [카드!!] → 이것의 모음
- 성평등 약속 선언문 작성

마무리)

- 평가 및 질의 응답
 - 지속할 것 →
 - 시작할 것 √
 - 그만둘 것 X
-

◦ 4조

흐름)

*교육대상 :

- 초등교사 30~50명
- 여초 집단이나 젠더감수성은 낮은 상태
- 폭력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잘 모르고 예방 등에 있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2회기×100~120분/도서관 등 그룹활동이 가능한 공간

성폭력)

- 도입(자기점검) : 성폭력(사건 제시) 피해자, 가해자가 받을만한 질문 써보기(당사자 가족들에게 들을법한 말 써보기)
- 성폭력이란? “동의”
- 원인은? “젠더 권력/고정관념” 작동 ex) 무거운 것 나르기, 가정통신문 가져오기, 게시판 정리

젠더)

- 교사가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카드 꺼내 구별해보기, 붙이기
- 남/여 성별관계X
- 모듬별 결과 서로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이유 설명해보며

젠더 개념 정리

- 교사 삶 속 섹스/젠더/섹슈얼리티

교사 자기 점검&교사 역할)

- 주어진 사례에 대응한 개인 경험을 정리해둔 상태(1.대응방법
- 유무 2.감정 3.내가 했던 대응)
- 당면 과제 제공 → 조별 대처 방안 토의&발표 → 대응이 어려울 때는 그 이유 생각해보기. 작동하는 젠더 구조 점검
- 전문가 보충

◦ 5조 <5인 1모둠 30명 기준>

도입) 동영상

- ‘alarm’ 양가 감정
네 시간 자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너 그래서 남자구실 하겠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다리 벌리고 앉지마
누구보여주려고 그래?

전개) 카드 ppt(가해교사발언과 오버랩부분 비교)

- 젠더(참여활동, 10')
 - 카드(sex/gender/sexuality)
 - 그룹 모의 토의
 - 문장 1개/개념카드 3개 : 모둠별로 다른 것 하나씩 선택 후 s/g/s 중 어떤 건지!
- 차별

- 카드 문항들에서 차별 이야기 나누기(자기 경험 끌어오기+ 차별요소 찾아보기)

- 성폭력

- 스쿨미투(학교문화/가해교사발언 등)

마무리(평가)) 포스트잇

- Head/Hand/Heart : 개인별로 작성 후 발표는 자원!

◦ **6조**

- **주제** : 성폭력 그리고 젠더

- **학습목표** : 젠더기반 성폭력 구조를 안다.

- **대상** : 지역 초·중·고 보건교사(30명)

- **장소** : 6개 모둠 활동이 가능한 공간

- **시간** : 2시간(단회기 강의)

- **도입** :

- (학습동기 부여) → 20분(PPT, 영상)

- ‘교내성고충상담원’으로 겪는 어려움 공감

- ‘성인지감수성’ 개념과 형성 과정(영상)

- **전개** :

- ① ‘성인지감수성’ 개념 안의 gender 이해

- sex, sexuality, gender 개념 - 조별 활동(30분)

- ② gender와 성폭력 → school me too 사례 중심(30분)

- **마무리** :

- 평가활동지 작성(개인평가지) - Head/Hand/Heart(10분)

- 성문화변화 수용의 중요성 - ‘alarm’의 양가감정(20분)

2) 모둠별 활동결과에 대한 집단코칭 의견 모음

◦ <1조> 초등 여성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발표

목표 : 나의 언어로 젠더를 설명하고, 젠더 감수성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흐름 : 나는 어디에? - 서로 다른 나와 너 - 같은 장소 다른 경험 - 변화를 위한 약속

나는 어디에?

- 닫힌 그룹에서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을 고려한 안전장치
- 다양한 위치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롤플레이밍 게임으로 전환
- 역할에 이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 그 사람은 퇴근하면 뭐할까?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낼까?
-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것보다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추측해보기
- 참여학습 이후의 토론 시간에서 어떻게 젠더에 대해 감각하게 될 지를 이해해보는 활동을 디테일하게 설정
- 도발하는 멘트가 있고, 그 예상 대답까지 설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함.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까지 잡아보는 게 교육 설계

- 구성원이 모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모두 뒤로 가는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 **<2조> 고등학교 2학년 여남공학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발표**
우리 사회 젠더 불평등이 차별과 폭력을 양산함을 알고 그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시도한다.
 - 브랜치 기법이나 플로우 차트 사용으로 보완
 - 교실 안의 당사자성 고려
- **<3조> 스쿨미투가 터지지 않은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의 강의**
 - 인권, 성인지 감수성이 주제
 - 젠더 릴레이로 스피드 게임 진행
 -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카드 모둠으로 고민하고, 모둠의 선택을 집단에서 함께 고민해보기
 - ‘다리벌리지마’, ‘절꼭지’, ‘겨드랑이털’ 등 논쟁적인 단어
 -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보완책 논의: 사람들이 섹션별로 이동하게 하기, 롤플레이팅 형식으로 진행하게 하기
 -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됨. 적절성 고려
- **<4조> 초등교사 대상 강의 , 여초이면서 젠더감수성이 크게 높지 않은 성격의 집단에 대한 호기심**
 - 성폭력 도입 질문 : 피해자와 가해자가 받을 만한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 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

엇이 있을까?

◦ <5조>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구분하기

스쿨미투 가해 발언이었다는 맥락 제시

- 다리 벌리지 마
- 누구 보여주려고 그렇게 입고 다녀?
- 너 그래서 남자 구실하겠니?
- 네 시간 자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 <6조> 파워워킹 문항 세밀화 작업하기

- ‘안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감각이 모두 같은가? 단순히 방화 벽이나 소화기 비치등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는가?
- 야근할 때 교실 문 열고 일할 수 있다.
- 교무실에 들어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회식 때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 불편한 언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성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지 않다.
- 직원여행은 아주 즐거운 학교 행사이다.

UN 여성훈련센터 & 네덜란드왕립열대연구소 KIT가 공동개최한
【성평등교육전문가 전문훈련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워크숍

성평등 2019-발간자료-03

인 쇠 일	2019년 12월 23일
발 행 일	2019년 12월 23일
발 행 인	노주희
발 행 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집 필 인	황금명륜
편 집	김지은
주 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전 화	02-6258-1010
홈페이지	www.seoulgenderequity.kr
인 쇠 처	녹인이디컴(02-2268-4763)

